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홍성표*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 Power in Korea Defense Industry

Hong, Sung Pyo*

내용목차

1. 서언
2. 방산수출정책의 변동
3. 방산수출실적의 분석
4. 주요국의 방산수출입 동향분석
5. 방산수출경쟁력의 분석
6. 방산수출경쟁력의 제고방안
7. 결론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 Power in Korea Defense Industr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OK's export policy of defense product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 for expanding defense industry export. Leading countries in defense industry export, including the US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Russia, have actively driven export policy led by her governments' authority.

In order to expand defense industry export, it is essentially required for the ROK to develop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and produce competitive defense products, both in price and quality. For this, the integrated effort of the government, industry, military and R&D organizations is crucial. In addition, the ROK should actively cultivate international markets for expanding defense expor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ROK is also needed a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for expanding its defense industry export.

The ROK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institutionally supporting incentives for expanding defense export to the defense industry circles. Those are included foreign countries's defense acquisition plans and long-term demands, tax reduction, finance support, and hosting international exhibition events on defense products.

<Key Words> *Defense Industry, Defense Export, Defense Market,
Defense Technology*

1. 서언

변화와 혁신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는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였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패러다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국제적 안보환경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안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경제, 기술 및 환경안보의 틀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패러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최근의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은 새로운 정보 및 우주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선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첨단 무기장비 중심의 군사력건설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세계 각국들은 제한된 국방비로 효율적인 군을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방비 감축 및 무기수요의 감소로 방산업체 불황을 초래, 범국가적인 방산지원 정책,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무기장비 연구개발의 활성화,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제협력, 해외수출증대 등 구조 개편과 글로벌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방산수출시장은 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미국, 러시아, 서유럽국가 등 거대 기업들의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들마다 방위산업의 내수 한계 극복과 국가방위산업 기반의 유지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은 방산시장 개척과 방산물자수출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본병기의 수요 증속과 방산물자의 수출 저조로 가동률이 저하되어 방산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 규제 및 제약요인으로 수출 진흥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전략 차원의 방산수출전략 개발 및 수출증진방안이 미약한 실정이다.

방산수출은 국가위상과 직결되어 있어 방산진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법제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자주국방의 기초인 국산무기장비체계 구축과 핵

심 무기장비의 연구개발(R&D)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적 방산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세계의 지역별, 국가별 주요 방산수요시장 규모를 분석하여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산수출정책의 변동

방위산업의 발달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기반조성단계, 정착단계, 확장발전 단계, 도약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반조성단계는 기술도입과 모방개발생산을 주로 한 1971-1976의 기간으로서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 국방과학연구소 설립(1972), 국산무기개발위원회조직(1972), 방위세 신설(1975) 등이 이루어졌다.

정착단계는 1977-81 기간으로서 기본무기 국산화와 고도의 전략무기개발에 주력한 단계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중장거리 유도탄 발사 성공(1978), 장갑차개발 결정(1979) 등이 중점 이루어졌다.

확장발전단계는 1982-90 기간으로서 자주적 개발기반 구축과 고도 정밀무기 양산에 주력하였다. 기간 중 미국과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방위세는 1991년에 폐지되었다. 도약단계는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첨단무기장비 확충을 위해 해외구매와 기술도입생산에 주력하였다. 국방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산화 및 다변화정책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 국방개혁 2020이 법제화되었다. 기간 중 주요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사업 성과를 보면 <표1>과 같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은 1975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위산업 정책의 변화와 국방비 삭감 등으로 방산물자 수출정책은 한동안 표류하였고, 정책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를 설정하여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선진화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표1> 주요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사업 성과[1]

구분	주요 사업내용	목표
1차 (197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총, 박격포, 곡사포, 각종탄약, 지대지미사일 개발/양산 ○ 고속정 건조 ○ F-4전투기 도입 	최소방위전력 확보
2차 (198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55자주포, K-1전차, K-200장갑차 개발/일부 양산 ○ 한국형 초계함, 호위함 건조 ○ F-5전투기 조립생산 	방위전력 보완
3차 (198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55자주포, K-1전차, K-200장갑차 양산 ○ 209급(1,200톤급)잠수함 건조 ○ KF-16전투기, UH-60헬기 기술도입 생산 ○ 국산 지대지 미사일 '현무' 양산 	방위전력 향상과 공세전력 기반 조성
4차 (1997-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1A1전차, K-9자주포 개발/양산 ○ 한국형 구축함(KDX-I, II), 214급(1,800톤급) 잠수함, 한국형 이지스함(세종대왕함) 건조 ○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기본훈련기(KT-1) 개발 양산 ○ K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 국산 지대공 미사일(천마),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신궁), 함대함 미사일(해성) 개발/양산 ○ 국산 중어뢰(백상어), 경어뢰(청상어) 개발/양산 ○ 한국형 헬기(KHP) 개발 착수 	현존 및 미래 위협대비 첨단핵심전력 확보

3. 방산수출실적의 분석

3.1 분야별 방산수출

항공분야는 최근 5년간 본격적인 수출이 추진되었다. 대표적 수출 품목은 기본훈련기(KT-1) 및 전투기(F-15K) 부품들이다. 항공분야는 기술 수준이 다소 열세이며, 시스템제품보다 부품위주의 수출구조이며, 선진국시장에 절충교역, 정비용역 등 간접적인 참여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함정분야는 90년대 후반부터 대형함정 건조사업 수주로 수출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내부 장착 탑재장비의 경쟁력 약화로 합체건조사업(프리킷함, 상륙함, 지원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약분야는 42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이루고 있다. 탄약의 소모성 특성과 타 분야(기동/화력분야)와의 연계성으로 지속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소구경탄약(미국), M9 Link(호주), Propellant(대만) 등 수출성파로 전년도 대비 약 2배정도가 증가되었다.

총포분야는 K-9 자주포의 터키수출을 계기로 한국 시스템장비의 첫 중동수출 시장 진출성파를 이룩한 분야이다. 기본화기품목은 비록 소량이지만 19개국이라는 비교적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06년도 주요 수출품목은 신형 155mm 자주포(K-9)부품, K3, K7(콜롬비아, 인도) 총기 등이며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되었다.

기동분야는 장갑차를 포함하여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군용차량은 저렴한 가격, 접근의 용이성으로 주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중동, 아프리카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통신분야는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장비(UAE) 같은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절충교역을 통한 음파탐지기, 측음기 등 전자전 장비의 수출이 증가되었고 '06년도에는 인니에 무전기 등 수출성파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용역분야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지만 '06년도에 미국에 F-16 기골보강, 인도네시아에 항공기엔진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반물자분야는 세계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소량소액 수준이다. '06년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인경계로봇과 쿠웨이트에 AK47탄창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분야별로 종합하면 <표4>과 같다.

<표4> 분야별 수출 현황

(단위 : 만불)

구분	탄약	총포	통신	기동	합정	용역	항공	기타	계
2005	2,611 (10%)	2,791 (11%)	57	2,362 (9%)	126	1,182 (5%)	15,231 (58%)	1,873 (7%)	26,233 (100%)
2006	5,072 (20%)	6,319 (25%)	652 (3%)	2,222 (9%)	0	637 (2%)	9,308 (36%)	1,313 (5%)	25,523 (100%)

3.2 지역국가별 방산 수출

2005-2007년 기간 동안 지역국가별 방산수출 실적을 보면 <표5>에서와 같이 미주, 중남미, 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표5> 국가별 수출실적[4]

(단위 : 만불)

구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주/중남미	계
2005	7,247 (28%)	2,937 (11%)	0	1,414 (5%)	14,635 (56%)	26,233 (100%)
2006	3,077 (12%)	7,396 (29%)	277 (1%)	321 (1%)	14,452 (57%)	25,523 (100%)
대상국 ('06년)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련,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니, 아프가니스탄, 일본,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7개국)	사우디, UAE,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터키 등 (7개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수단, 케냐, 에티오피아 등 (5개국)	그리스, 독일, 러시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등 (9개국)	총 44개국

3.3 방산수출 실적분석

2002년 이후 한국이 추진해온 방산수출 실적 내역을 보면 <표6>, <표7>과 같다. 방산수출실적은 2004년도에 대형상륙정과 F-15K 및 K-9 부품 수출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방산수출품목은 주로 미국과의 절충 교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 방산수출을 종합하면 전년도 대비 710만불이 감소된 2억 5,523만불로 집계되었다.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훈련기(KT-1)의 인니 및 과테말라 수출 순연, 함정, 자주포, 장갑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신규시장 개척 지연,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미 일부국가 수출제한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안보상황에 따라 중동시장과 같은 주요 방산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수출증대를 위해 시장정보파악과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 및 신규시장 개척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과거 대기업 위주 방산시장에서 중소기업체의 특화된 제품 수출전략을 발전시키고 무인 경계로봇, 야간투시경, 무인항공기 관련 장비의 수출 등 방산수출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표6> 연도별 주요 수출 실적 및 품목[2]

(단위 : 만불)

년도	수출실적	주요 수출품목
2002년	1억 4,390	K-9 부품 (터키), KT-1 (인니)
2003년	2억 4,061	F-15K 부품 (미국), K-9 부품 (터키) 잠수함 정비 (인니), 상륙함 성능개량 (인니)
2004년	4억 1,782	대형 상륙정 (인니), F-15K 부품 (미국), K-9 부품 (터키)
2005년	2억 6,233	F-15K 부품 (미국), K-9 (터키), KT-1 (인니), 2.5톤 차량 (태국)
2006년	2억 5,523	F-15K 부품 (미국), K-9부품 (터키), 소구경탄약 (미국), 경계로봇 (UAE)

<표7> 주요 제품별 수출 현황[3]

(단위 : 천불)

품목	금액	수출 대상국	비중(%)
F-15K 부품, K-9 자주포부품 항공기엔진 정비	149,800	미국, 터키, 인니 등	59
소구경 탄약	41,958	미국, 호주, 콜롬비아 등	16
추진체, 장약 등	12,594	대만, 필리핀, 인니, 미국 등	5
장갑차부품, 군용차량 등	9,071	말련, 수단 등	4
무인경계로봇	5,819	UAE	2
계	219,242	-	86

4. 주요국의 방산수출입 동향분석

4.1 주요국의 방산물자 수출정책

미국은 방산물자의 내수 감소 및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해외수출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세계 무기 거래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방안전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을 중심으로 정부대정부 판매를 기본으로 수출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방산무기장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7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영국의 방산수출 조직은 국방부 산하 DESO이며 차관보급 민간기업인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있다. DESO는 방산수출 관련 영국정부 접촉 강구, 방산수출 대외협력업무, 국내외 무기전시회 지원, 방산수출국에 대한 군사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방산수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항공장비나 부품, 첨단 전투체계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산수출 지원조직은 국가기관으로 각군본부, 병기본부(국제개발국, 무기사업국, 품질국, 시험평가국) 등이 있으며, 수출기구로는 프랑스 첨단무기수출공사(SOFRESA)와 프랑스 방산물자수출공사(SOFEMA)가 있다[5]. 정부차원의 방산수출지원활동은 수출환경조성 측면에서 수출대상국과 정치적 우호관계 강화, 상호협력협정 체결, 사업추진협력, 연구기술(R&T)협력, 해외 자국 방산업체 대표, 장교 및 기술진 교육 등 지원, 특정사업 지원 측면에서는 잠재 고객에 대한 경제정세 분석 지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방산수출 전담기관은 SIBAT이다. SIBAT는 수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고 수출마케팅, 수출통제, 품질보증, 잉여장비 수출, 전시회 업무 추진, 마케팅 관련 정보처리, 해외시장 분석 등 수출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부품, HARPY, 광학장비, 항공전자 장비, UAV 등이며,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 생산자간의 Feedback 과정이 원활하여 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 창출과 신속한 제품 향상 능력이 방산수출 경쟁력 제고의 증대
한 요소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방산수출관련 조직은 해외 군사기술협력 활동 승인 및 방산업체 통
제 등 방산 관련 러시아연방 정부의 의결기구인 군사기술협력위원회, 해외 군사
기술협력 활동 추진 및 방산업체 통제기구인 군사기술협력청, 방산수출 관련 계
약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국영 무기수출 공사(ROE) 등이 있다. 러시아는 인도
와 중국이 전체 방산수출액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및 중남
미 지역으로 방산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4.2 방산물자 수입동향

2000년대 들어 주요국가들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주로 노후화된 장비를 첨단무기장비로 교체하여 역내 군사력
우세를 추구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군사력 현대화는 대부분이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차세대 전투기 및 잠수함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8> 주요국들의 방산물자 수입동향

국가	내용	목적
인도네시아[6]	잠수함(Kilo급), 헬기(Mi-17), 수호이 전투기, 장갑차	미국의 무기금수조치에 대한 돌파구, 군 장비의 현대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K-9 전차	역내 군사강국 추구
UAE[7], 멕시코, 과테말라	T-50	공군 훈련기 확보
파키스탄[8], 이란	중국제 샤오롱 전투기(FC-1)	인도에 대한 공군력 우위확보
인도[9]	전투기 126대 공개입찰	군 현대화
호주[10]	C-17수송기, F-35전투기(100대), 항공모함	군비증강과 국제파병을 통한 위상 제고, 미일 동맹과 협조체제 강화
사우디아라비아	유로파이터 타이푼(72대)	영국제 토네이도 전폭기 대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MIG-29(350대)	NATO 동진에 대응, 첨단무기 개발 재 원확보

4.3 주요국의 방산물자 시장규모

주요 지역별, 국가별 방산 수입시장을 분석하면 아래 <표9-15>와 같다. 지역별 대표적 방산 수입국가인 미국, 인도네시아, 터키, 체코, 브라질, 모로코, 중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9> 미국의 주요 방산수입품목 구조[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생산국						
캐나다		PT-6	훈련기(터보프롭)	782	1996	1999-05	269
프랑스		MO-120-RT-61 120mm	박격포	69	2004		..
독일		MTU-883	차량용 디젤엔진	1,013	2003	2005	1
		TRS-3D	감시 레이더	5	2004		..
이스라엘		CARDOM 120mm	박격포	..	2003	2004-05	75
뉴질랜드		A-4K Skyhawk-2	FGA 항공기	17	2005		..
남아프리카		RG-31	무장인원수송차량	148	2005	2005	148
스페인		CN-235MP	수송기	2	2004		..
스위스		F-5E	FGA 항공기	32	2003	2003-05	19
영국		Seaspray	대잠 항공기 레이더	27	2005		..
	호주	LCS	프리깃 함	1	2005		..
	캐나다	Piranha-3	전투지원차량	204	2000	2002-05	33
		LAV-25	전투차량	1,837	2000	2002-05	1,406
	프랑스	FLASH	음파탐지기	200	2005		..
	이스라엘	Lighting	항공기 전자/광학 시스템	..	2001	2002-05	40
		Lighting	항공기 전자/광학 시스템	24	2005		..
		AGM-142	공대지 미사일	250	1998	2000-05	250
	스위스	PC-9/T-6A	훈련 항공기	782	1996	1999-05	269
	영국	Hawk/T-45A	훈련 항공기	187	1981	1990-05	181
		UFH/M-777 155mm	견인포	591	2000	2002-05	62

<표10> 터키의 주요 수입품목[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 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 생산국						
캐나다		PW-100	Turboprop	20	2005		..
프랑스		Ocean Master	해상항공기레이더	19	2002		..
독일		Leopard-2A4	탱크	298	2005		..
		MTU-881	디젤엔진	470	2001	2003-05	55
		DM-2A4 533mm	대함어뢰	40	1999	2004-05	40
이스라엘		Heron-2	무인기	10	2005		..
		Sabra-3	탱크	170	2002	2005	2
이탈리아		ATR-72MP	대잠전/감시항공기	10	2005		..
		Bell-412	헬기	5	2005		..
		RAT-31S/L	공중감시레이더	4	2002	2005	2
네덜란드		LIROD	화력통제레이더	6	2001	2004-05	3
		MW-08	공중감시레이더	6	2001	2004-05	3
		STING	화력통제레이더	6	2001	2004-05	3
미국		Boeing-737-7ES	조기경보기	4	2003		..
		S-70B/SH-60B	대잠전헬기	12	2005		..
		AN/APG-68	항공기레이더	117	2005		..
		AN/MPG-64	공중감시레이더	8	2002	2005	8
		I-HAWK	SAM시스템	8	2002	2005	8
		AIM-9X	단거리공대공미사일	127	2005		..
		MIM-23B HWAK	SAM	175	2002	2005	175
	독일	Frankenthal	기뢰대응함	6	1999	2005	1
		Kilic	고속공격기(미사일장착)	6	2000	2004-05	3
		Type-209/1400	잠수함	4	1998	2003-04	2
	한국	K-9 Thunder 155mm	차주포	300	2001	2003-05	54
	영국	Rapier MK-2	SAM	840	1999	2002-05	325

<표11>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품목[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 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 생산국						
캐나다		PT-6	Turprop	5	2005		..
프랑스		TB-9 Tampico	경항공기	5	2004	2004-05	5
		Master-T	공중감시레이더	1	2004		..
		Master-T	공중감시레이더	2	2005		..
		Makila	Turboshaft	6	2000	2004-05	6
		Ocean Mater	대잠항공기레이더	9	1996	2000-05	6
독일		MTU-4000	디젤엔진	12	2000	2000-05	12
		TBD-620	디젤엔진	12	1999	2000-05	12
한국		KT-1	훈련항공기	5	2005		..
네덜란드		SIGMA-90	프리깃함	2	2004		..
		SIGMA-90	프리깃함	2	2005		..
폴란드		M-28 Skytruck	경수송기	3	2005		..
		M-28B Bryza-1R	대잠감시항공기	7	2005		..
		Kobra	SAM시스템	1	2005		..
		GROM-2	휴대용 SAM	..	2005		..
		NS-935	감시장비	5	2005		..
미국		CAT-3516	디젤엔진	8	2000	2002-05	8
		AN/APG-66	항공기레이더	16	1996	1999	10
	한국	LPD-122m	수륙양용상륙함	4	2004		..
	스페인	C-212MP Aviocar	대잠감시항공기	6	1996	2005	3

<표12> 브라질의 주요 수입품목[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생산국						
캐나다		PT-6	Turboprop	76	2001	2003-05	52
		PW-100	Turboprop	24	2005		..
프랑스		Mirage-2000	고속공격항공기	12	2005		..
		Ocean Master	대잠항공기레이더	8	2005		..
		MM-40 Exoset	대함미사일	8	1995	2002	1
독일		MTU-1163	디젤엔진	2	1994		..
이탈리아		Grifo	항공기레이더	46	2000	2005	..
		RAN-20S	공·해감시레이더	7	1995	2001-05	6
		RTN-30X	화력통제레이더	13	1995	2001-05	12
		SCP-01 Scpio	항공기레이더	53	2004		..
사우디		F-5E	고속공격항공기	9	2005	2005	9
스페인		C-295	수송기	12	2005		..
미국		Bell-205/UH-1	헬기	24	2003	2004-05	24
		Cessna-208	경수송기	..	2005		..
		P-3A Orion	대잠전/감시항공기	8	2002		..
		S-70A/UH-60L	헬기	10	2005		..
		LM-2500	가스터빈	1	1994		..
		EDO-997	음파탐지기	7	1995	2001-05	6
	독일	Type-209/1400	잠수함	1	1995		..

<표13> 체코의 주요 방산수입 품목[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생산국						
호주		Pandur-2	보병전투차량	199	2005		..
이탈리아		RAT-31S/L	공중감시레이더	2	2002	2005	1
러시아		MI-24/MI-35	전투헬기	10	2004	2005	8
		MI-8/17	헬기	16	2004	2005	16
스웨덴		JAS-39 Gripen	고속공격용항공기	14	2004	2005	14
		ARTHUR	포 위치추적레이더	3	2004		..
		RBS-70	휴대용 SAM	200	2004	2005	15
영국		Condor CV-12	디젤엔진	36	2002	2003-05	35
미국		F-404	Turbofan	14	2004	2005	14
		ISC-350	디젤엔진	199	2005		..
		AIM-120C	공대공미사일	24	2005		..
		AIM-9M	단거리공대공미사일	100	2002	2002-05	100

<표14> 모로코의 주요 수입품목[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생산국						
프랑스		DRY	항공기레이더	27	2005		..
		MICA	공대공미사일	..	2005		..
러시아		2S6M Tunguska	대항공기차량	6	2005	2005	2
		9M311/SA19	SAM	96	2005	2005	32
스페인		M-60A3	탱크	..	2005		..

<표15>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11]

구분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류	주문량	주문년도	인도년도	인도
공급국	면허생산국						
독일		MTU-1163	디젤엔진	14	1987	1994-05	14
		MTU-396	디젤엔진	44	2000	2001-05	40
		MTU-883	디젤엔진	..	1989	1988-05	160
러시아		A-50U	조기경보통제기	3	2003		..
		MI-8/17	헬기	24	2005		..
		AL-31FN	Turbofan	54	2000	2001-05	54
		AL-31FN	Turbofan	100	2005	2005	20
		D-30	Turboprop	200	2005		..
		RD-33/RD-93	Turbofan	100	2005		..
		64N6	공중감시레이더	1	2004		..
		Fregat	공중감시레이더	4	2001	2004	2
		MR-90	화력통제레이더	..	2001	2004	8
		S-300PMU-2	SAM 시스템	8	2004		..
		Zhuk	항공기레이더	..	2005		..
		3M-54E1 Klub	대함미사일	..	2002		..
		48N6/SA-10	SAM	144	2002		..
		48N6E2/SA-10	SAM	297	2004		..
		9M311/SA-19	SAM	212	2002	2005	106
		9M317/SA-17	SAM	264	2001	2005	66
		Kh-31A1/AS-17	대함미사일	..	1997	2003-05	125
		Kh-31A1/AS-17	대레이더미사일	..	1998	2001-05	189
Kh-59M/AS-18	공대지미사일	..	1999	2004-05	100		

		Kh-59M2/AS-18	대함미사일	..	2005		..
		SS-N-22	대함미사일	32	2001	2005	16
		R-73/AA-11	단거리공대공미사일	..	1995	1996-04	1,800
		R-77/AA-12	공대공미사일	..	2000	2002-04	300
		Kilo/Type-636E	잠수함	8	2002	2005	2
		Sovremenny	구축함	2	2002	2005	1
영국		Spey	Turbofan	140	1988	1997-05	66
		Searchwater	조기경보기레이더	6	1996	1999-01	2
우크라이나		DT-59	가스터빈	8	2001	2004-05	8
		R-27/AA-10	공대공미사일	1,260	1995	1996-05	1,000
		R-27E/AA-10	공대공미사일	1,260	1995	1996-05	1,000
우즈벡		Il-76M	수송기	30	2005		..
		Il-76M	급유기	8	2005		..
프랑스		AS-350/550	경헬기	..	1992	1995-05	22
		AS-365/AS-565	헬기	..	1988	1992-05	14
		AS-365F/565SA	대잠헬기	..	1980	1989-05	25
		PA-16	디젤엔진	12	2001	2004-05	8
	독일	BF-8L	대젤엔진	4,000	1981	1982-05	3,900
	러시아	SU-27SK	고속공격용항공기	95	1996	1998-05	95

5. 방산수출경쟁력의 분석

5.1 방산업체별 주요수출품목

<표16> 주요 수출주도 업체별 수출품목[12]

구분	주요 방산업체	주요 수출품목
수출 주도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T-50, KT-1, KO-1
	삼성 테크윈	K-9자주포, K-10탄약운반차
	삼성탈레스(STC)	단거리지대공유도탄, 휴대형 열영상쌍안경, 전술통신장비, 위성통신장비 등
	LIG 넥스윈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항만감시체계 등
	두산 인프라코어	장갑차, 장갑차 성능개량, 천마/비호

<표17> 분야별 주요 수출업체 및 수출품목[12]

구분	주요 방산업체	주요 수출품목
함정건조 분야	현대 중공업	훈련함, 프리깃함, 경비함, 군수지원함
	대우조선해양	프리깃함, 잠수함, 창정비
	한진중공업	다목적 군수지원함, 소형함정
	강남	소해함, 고속경비정
전자훈련체계 분야	도담 시스템	경계장비, 시뮬레이터
화약, 탄약 분야	한화	소구경 총기, 견인곡사포, 탄약교체
	삼양화학	탄약, 화생방 장비 및 물자
	풍산	소구경 탄약
통신전자 분야	이오시스템	단안형 야간투시경, 휴대형 주야관측장비
	휴니드	각종 통신장비
기동 분야	기아자동차	1/4톤 쉼, 카고 차량
	로템	차기전차, 차륜형 장갑차
화기, 총포, 함포 분야	대우정밀	개인화기, 기관총, 고속유탄포
	위아	화포 및 함포
항공유도 분야	대한항공	F-16 기골보강
	한벨 헬리콥터	헬기 기체정비
	퍼스텍	KHP 핵심 구성품 개발 참여
기타 핵심 분야	STX엔진	해안감시레이더
	삼공물산	방독면

현재, 해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산품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T-50 ‘골든이글,’ K-9 155mm자주포, XK-2 차기전차 ‘흑표,’ 함대함 미사일 ‘해성,’ 휴대용 미사일 ‘신궁,’ 대형 상륙함, KT-1 기본훈련기 ‘응비,’ 어뢰 백상어·청상어, KDX-2 한국형 구축함, 크루즈 미사일 ‘현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III)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산 전투장갑차의 성능은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하다.

<표18> 세계의 장갑차 성능 비교[13]

구분	K-21(한국)	M2A3(미국)	Warrior(영국)	BMP3(러시아)
탑승인원(명)	12	10	10	10
최고속도(km/hr)	70	61	70	70
수상속도(km/hr)	7.8	불가능	불가능	10
주포구격(mm)	40	25	30	30
대전차유도무기	3세대급	TOW-2A	없음	AT-10
C4I	연동	연동	비연동	비연동

금후, 한국이 역점을 두어야 할 방산수출 품목들은 스마트무인기, 전투장갑차(K-21), K-55 탄약 운반 장갑차, 한국형 기동헬기(KHP), 차기 주력전차 ‘흑표’ 장착용 능동방호시스템(APS), 전자기파(EMP)와 마이크로웨이브(HPM) 발생 기술, 레이저 발진, 전열추진기술 등 고에너지 방사기술과 비살상개념의 탄소섬유탄, 일반폭탄에 정밀유도장치를 부착한 폭탄, 그리고 소형 무인전투차량 개발 기반마련을 위한 직렬식 동력장치의 하이브리드카 등을 꼽을 수 있다.

5.2 지역국가별 방산협력

방산수출은 정부대 정부, 국가대 국가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협력을 보장하고 있다.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19>과 같다.

<표19> 국제 방산협력 국가 현황[14]

구분	국가명
방산·군수협력 협정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인니, 호주, 이스라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루마니아, 베트남, 캐나다, 러시아,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베트남, 방글라데시
품질 보증협정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 필리핀, 이스라엘, 독일, 터키, 인니, 뉴질랜드, 그리스
과학기술자/자료교환 협정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스라엘
가격 정보협정	미국, 영국, 독일

5.3 방산수출의 성패사례

방위산업 수출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규제와 제도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장담하기 어렵다. 참고로 근년에 성공과 실패사례를 예시하면 <표 20>와 같다.

<표20> 방산수출 성공/실패 사례분석[15]

구분	수출대상국	주요품목	주요 요인
성공 사례	터키	K-9 155mm자주포	세계 자주포 대비 우수한 성능, 양국의 정치적 우호관계, 가격 경쟁력 우위, 미국과 다른 기술 이전 조건, 양국의 NATO기준 방위체계 구축
	베네수엘라	항공기 엔진개량 군수 지원함	정부차원의 정보획득, 정부의 획득정보 신속 제공, 무관의 목표의식 및 활동
	터키	탄약	터키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 인맥구축-구매 정보 사전입수, 무관의 방산협력회의 지원 정기적인 방산인사 견학, 다량소요 발생 정보 획득
	방글라데시	프리킷 함 (1대)	군사 원조와의 연계, 현지 대사관 등 정부차원의 세일즈 외교, 적극적인 군 지원
	말레이시아	K200 장갑차(111대)	소요제기에서 수출까지 정부, 군, 업체의 유기적 협력, 양국간 방산공동위원회 설립, 적극적 홍보활동, 신뢰구축 및 신용도 확보, 양국업체간 양해각서 체결, 과감한 기술 및 설비투자, 말레이시아 내부 정치적 상황
	인도네시아 터키	KT-1(12대) KT-1(54대분)	정부대정부의 신뢰구축, 연불금융의 이행, 정부의 적극 지원, 우수한 성능
	미국	MLRS 무기체계	추가 개발(개조)비 보상
A-10 개조		우수한 기술력, 최상의 품질관리, 꾸준한 정비 실적과 납기 준수 등에 의한 신뢰구축	
실패 사례	터키	40M 자동유탄 발사기 포탄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간 갈등, 갈등 조정기구 부재, 터키의 국내적 상황 파악 미흡
		포탄	수입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 수출국과 관련된 수입국과 인접국가의 관계

5.4 방위산업의 문제점 및 수출 제약

방위산업지원에 대한 업계의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내재되어있어 정부차원의 방위산업지원 정책이 소극적이다. 또한 국방비 및 연구개발비가 제한되어 있어 방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있다.

또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수준은 미국 13%, 영국 11.4%, 프랑스 15%, 대만 4.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금액 면에서는 미국의 1/69, 영국의 1/6.7, 프랑스의 1/5.3배 수준으로 더욱 낮다.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표21>에 나와 있다.

방산시설은 전시 필수물자의 적시 공급을 위해 평시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나 평시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시설들이 많아 방산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제조업 분야의 평균 가동률이 70%대임에 비해 방산업체 가동률은 50% 내외로 낮다. 정부는 방산 유휴설비 최소화를 위해 전시 필요물자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방위산업체들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통제해야 한다.

<표21> 국방비 중 연구개발 투자실적[16]

구 분	70~79	80~89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연구개발 투자비율(%)	2.33	1.62	2.54	2.90	3.5	5.1	5.2	4.5	4.7

또한 국외도입 위주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국내 연구개발이 심하게 제한받고 있다.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인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차세대전투기 등이 대부분 국외 도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기술개발 연계전략 차원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제기함으로써 국외 도입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방산업체들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

구원이, 생산은 방산업체가, 정비는 군이 담당하는 분담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단순한 생산업무에만 치중할 뿐 연구개발을 소홀히 해왔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 미흡도 문제이다. 업체자체 연구개발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미약한 실정이다. 즉, 개발비용과 개발성능 확보에 대한 위험부담을 업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개발비용 보상은 엄격한 투입발생비용 위주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사업승인전 투입된 개발비용 불인정으로 업체의 자체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 방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 전문화, 계열화의 편중성이 심화되어 있다. 획일적인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으로 비효율적인 생산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소수 업체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표22>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품목 업체현황[17]

전문화		계열화	
품목	업체	품목	업체
31	29	86	48

그러다 보니, 업체간 협력이 경직되고, 타 분야 참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게 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투자분쇄로 방산투자를 위축시키며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전문화, 계열화 제도의 장벽으로 인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의 첨단 기술 활용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한국의 방산은 핵심기술 및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함에 따라 원가비중이 높아져 방산 수출품의 시장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약하다. 또한 방산물자 구매국들의 무기획득 계획 및 작전요구성능, 정책결정자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국가 방산업체의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정보는 업체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 정보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우리의 국방무관, 군수무관 등 방산정보지원 업무의 체계 미약으로 유효정보 제공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선진국들은 방산수출을 위해 국가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하고 정부의 모든 가용한 정보와 채널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국의 국가지도부는 해외 방산마케팅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매우 소극적, 제한적이었다.

5.5 방산업체의 시장점유율

세계 유수 방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겨우 0.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0대 방산무기 생산업체는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기업이 3개 포함되어 있다.

<표23> 방산업체의 지역/국가별 무기판매 점유율[18]

구분		무기 판매(억 달러)		무기판매 변화		총 무기판매 점유율(%)
방산업체수	지역/국가	2003	2004	액면	실제	
41	North America	147.7	170.3	15	12	63.5
40	USA	147.3	169.8	15	12	63.3
1	Canada	0.5	0.5	2	-17	0.2
40	Europe	71.0	82.1	16	2	30.6
11	UK	26.3	32.4	23	7	12.1
8	France	17.6	19.8	12	0	7.4
1	Trans-European	8.0	9.5	18	6	3.5
3	Italy	5.6	6.6	19	6	2.5
6	Germany	5.7	5.2	-8	-18	1.9
4	Russia	3.1	3.1	2	-14	1.2
2	Sweden	2.3	2.3	11	1	0.9
2	Spain	1.7	1.7	27	12	0.6
1	Switzerland	0.7	0.7	6	-3	0.2
1	Norway	0.4	0.4	-7	-12	0.1
1	Finland	0.4	0.4	64	49	0.1
9	Other OECD	8.2	8.2	11	3	3.1
6	Japan	6.5	6.5	12	5	2.4
2	S Korea	1.3	1.3	3	-4	0.5
1	Australia	0.4	0.4	19	2	0.2
	Other					

10	non-OECD	7.8	7.8	6	1	2.9
4	Israel	3.5	3.5	0	-1	1.3
3	India	2.3	2.7	15	8	1.0
1	Singapore	0.9	0.9	-3	-8	0.3
1	S Africa	0.5	0.5	0	-16	0.2
1	Brazil	0.3	0.4	38	23	0.1
100	Total	233.4	268.3	15	8	100.0

<표24> 세계 100대 주요 무기생산 방산업체 현황[19]

(단위: 2004년, US 달러, 명)

순위	방산업체	국가	주요 품목	총 판매	이윤	고용자수
1	Boeing	미국	Ac El Mi Sp	52,457	1,872	159,000
2	Lockheed Martin	미국	Ac El Mi Sp	35,526	1,266	130,000
3	Northrop	미국	Ac El Mi SA/A Sh Sp	29,853	1,266	125,400
4	BAE system	영국	A Ac El Mi SA/A Sh	24,687	1,084	90,000
5	Raytheon	미국	El Mi	20,245	-855	79,400
6	General Dynamic	미국	A El MV Sh	19,178	417	70,200
7	EADS	유럽	Ac El Mi Sp	39,455	1,227	110,660
8	Thales	프랑스	El Mi SA/A	12,780	1,280	55,480
9	UTC	미국	El Eng	37,445	246	209,700
10	L-3 Communication	미국	El	6,897	2,788	44,200
19	Mitsubishi	일본	Ac MV Mi Sh	23,945	37	34,310
56	Samsung	한국	A El MV Mi Sh	121,700	11,800	222,000
69	Samsung Techwin	한국	A El Eng MV	1,729	23	4,140
76	KAI	한국	Ac	571	6	2,920
100	Patria Industry	핀란드	Ac MV SA/A	430	32	1,880

주: A=Artillery, Ac=Aircraft, El=Electronics, Eng=Engines, Mi=Missiles, MV=military Vehicles, SA/A=Small Arms/Ammunitions, Sh= Ships, Sp=Space를 의미함.

6. 방산수출경쟁력의 제고방안

6.1 방산수출 3단계 전략

한국은 방산선진국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산·군수협력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체결하고 수출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시장을 개척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방산수입국들을 구분하여 3단계로 접근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표2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25> 3단계 방산수출기지 접근 전략

구분	내용	해당국	선정이유
주요수출기지 (Main Export Bases: M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된 대규모 방산수출지원기지 ○ 배치된 인원은 장기간 근무 및 가족동반 가능 ○ 방산수요 정보 파악 및 주요 인사와 신뢰구축 ○ 소요 발생시 신속한 입찰 ○ 방산업체 및 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미국 UAE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최신방산제품 정보획득 용이 수출상담 진행 중 거대 방산시장 보유 상호운용성 극대화
전진수출거점 (Forward Export Sites: F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B보다 편의시설이나 규모가 작은 기지 ○ 가족동반없이 통상 1년 이하 근무 ○ 지역별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거점국가로 활용 ○ 주변국에 대한 한국 방산품에 대한 인지도 및 홍보 역할 	인니 터키 남아프리카 영국 베네수엘라 등	지역별 기방산수출 성공국가 지역 내 영향력 확보국가 주변국내 한국 방산품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가능
잠재적수출국 (Potential Export Nation: 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 방산업체나 민간 계약 업체에 의해 운영, 직접 상주하지 않고 지역 내 주요 이슈 발생시 개입 대비 ○ 소규모 연락처로서의 역할 ○ 직접적인 방산수출을 시도하지 않지만 정치외교적, 군사적 신뢰구축 및 소요판단하기 위한 소규모 연락요원만 상주 지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잠재적 방산시장 거대 선점을 위한 신뢰구축의 필요성 대두 군사혁신 추진으로 수입시장의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산수출 잠재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 산하 방위산업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방산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가능한 국가이다.

인도도 최근 국제안보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무기 구매처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매년 10%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 첨단 공군력의 확충과 항공모함 건조 등 군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추진된 불곰사업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방산수출전략거점으

로 발전시켜야 한다.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자원을 확보하고 한국의 응용기술, 실용화기술과 러시아의 원천기술의 접목을 바탕으로 한러 군사기술협력을 증진시키면 세계 방산수출 증진과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6.2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방산업체들의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정부보유 기술 사용료 면제 등 수출에 대한 간접비 보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위산업 기반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체계별 동종 및 유사 업종끼리 설비합리화와 방위산업체를 고도화된 연구개발인력과 생산인력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등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이전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방산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겸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는 중요하다. <표26>에서 보듯이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이 증가추세에 있긴 하지만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산업경쟁력을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시 민수산업을 군수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민군간 중복투자를 예방하여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절감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26>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현황[20]

연도	민수이전 대상기술 선정	민수이전	
		업체/기관	기술
'94	전자지도 정보 및 도시용 S/W 등 12건	-	-
'95	-	LG소프트웨어 등 2	전산지도정보 및 도시용 S/W
'96	-	항공우주연구원 등 12	전산지도정보 및 도시용 S/W 등 4건
'97	음향 차폐장치 설계기술 등 9건	풍산 등 15	고폭화약 화약가공 기술 등 4건

'98	열상장비 신호처리기 설계기술 등 7건	유니슨 산업 등 9	음향차폐장치 설계기술 등 6건
'99	해양물리자료 분석 시스템 등 10건	한국중공업 등 13	폐회로 디젤 추진장치 등 7건
'00	교류자장 탐지용 자기 센서설계/제작기술 등 18건	한양대학 등 9	해양물리자료 분석 시스템 등 8건
'01	한국군 지휘소 자동화 체계설계 및 개발 등 8건	제일정밀 등 15	이중분리 콘넥터 제작/시험평가 기술 등 13건
'02	항공기 인증기술 등 15건	삼성탈레스 등 5	전산지도정보 및 도시용 S/W 등 3건
'03	위성 영상지도 등 9건	한화 등 11	고체추진제의 조성 및 제조기술 등 10건
'04	스마트 센서 등 20건	넥스원 퓨처 등 13	Fixed Point 제어알고리즘 구현기술 등 11건
'05	수중운동체 추진장치 등 51건	로템 등 14	무기체계/제품설계/형상정보관리 S/W 모델링 및 체계모델 등 13건
계	159건	118개	71건

셋째, 민간업체, 정부, 군 간의 유기적인 방산수출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방산제품 마케팅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방산전시회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해외시장 정보 획득을 위해 무관들의 방산정보 활동을 강화하며,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출경쟁력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수출 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방산수출지원 활동비용에 대한 국고금 지원 및 해외마케팅 비용 원가인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신용등급 평가, 금리 유연성 확대 등 관련 금융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술료 납부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이원화하여 국내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징수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출용일 경우에는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방산관련 각 부처 및 기관들의 업무를 연계, 조정, 통제하는 통합된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방산수출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 군, 민간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유지발전시키고 방산업체 중심의 방산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및 여건을 보

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방산수출 전담기구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표27>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8>에 나와 있듯이 방산군수협정도 제한된 수자의 국가들과만 체결되어 있다. 정부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군수협정 체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표27> 선진국들의 방산수출 전담조직 및 지원제도/활동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0수출 전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부무: 수출허가 ○국방부: FMS 수출 및 방산업체 수출지원(DSCA, DTSA, SAO) ○상무부, 각군 안보 지원부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SO:방산물자 수출 시장정보 및 수출관련 전문적인 지원 제고, 잉여장비 판매 -600여명(현역 60명) ○DESO산하 잉여장비 판매처 운영(D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DGA산하 DRI -방산물자수출시장 조사, 수출 가능 제품 추천 -약 3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산하기관인 해외 방산수출 및 지원기구(SIBAT)에서 담당 -방산업체 수출마케팅 자문, 수출활동 통제/감독, 도태장비 판매
수출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원: FMFP ○수출경쟁 심화 시 연구개발비용 미회수에 의한 가격 경쟁지원 ○정부의 수출신용 보증제도 ○안보 지원부서의 업체지원(SAAM 규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수출신용보증기관 (ECGD)에 의한 연불수출 금융 간접지원 ○경쟁심화시 정부 연구개발비용 미회수에 의한 가격 경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 COFACE가 수출신용보증 ○경쟁심화시 연구개발비용 미회수에 의한 가격경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 정부간의 계약보증 ○정부간 포괄협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군사교류협력, 품질보증, 해외주재 국방 대표단 지원 ○ 해외방문 조직화
수출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차원에서 수출대상국 정보제공 ○품목별 시장분석 ○활동형태는 브리핑, 정기회합 등에 의한 간접적인 방산수출 촉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국제군사교육훈련 및 금융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SO의 수출지원 -국방부 차원의 전시회 참가 -품목별 시장분석 -수출관련 정부 및 군의 총괄 관리 -국내외 방문인사의 총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부처, DGA, 방산업체들로 구성된 해외 판촉활동 및 세미나 참가 -대외협력예산에 의한 간접적인 방산수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BAT가 방산업체에 대한 마케팅 자문, 훈련 ○지역별, 마케팅 부서에서 정보제공 ○국내외 방문인사의 총괄관리

<표28> 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 추진현황[21]

구 분	국 가
기체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10개국) : 뉴질랜드, 말린, 베트남, 인니,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호주, 인도, 파키스탄 ○ 유럽(6개국)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태리, 러시아·CIS(3개국) :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중동/북미/남미(5개국) : 터키, 이스라엘 / 미국, 캐나다 / 베네수엘라
우선 체결대상국	카자흐스탄,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알제리, 이집트, 오만, 남아공, UAE 등 9개국
지속 체결대상국	콜롬비아, 멕시코, 사우디, 스웨덴, 모로코 등 5개국

일곱째, 방산수출의 집중력 강화를 위해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방산업계는 정부와 업체간 공동체의식보다는 상호 견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방산수출을 위한 원활한 업무협조가 제한되고 있다.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방위산업 발전, 방산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도 수출이 어려운데 견제와 경계속에서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방사청과 한국방산진흥청, 관련 방산업체를 한 지역에 집적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통합된 선진방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특화된 제품개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C4ISR, PGM, NCW에 관련된 제품들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제품인 항공기 관련 제품을 적극 개발토록 해야 한다. 그 밖에 나노기술분야, 바이오기술, 새로운 에너지기술, 인식과학, 센서 및 네트워크 기술, 우주개발 분야 등 첨단장비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체계 개발에도 진력해야 한다.

7. 결 언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과 초정

밀 유도무기체계의 발달과, 스텔스 같은 첨단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전쟁양상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전쟁양상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 간에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선진국들일수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위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도 1970년대부터 방산육성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미약하고 근본적으로 자체 방산수요시장 규모가 작아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고 해외시장개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방산수출은 방산기업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가전략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방산육성정책이 보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위산업기반이 허약한 국가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교역국으로서 정부, 군, 산업체가 3위 일체된 노력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한남성, 『방위산업과 국제협력/수출』, (한국국방연구원, 2003), pp. 6-11; 조선일보(2007.5.15)에서 재편집.
- [2] 방산진흥국 (회의자료)
- [3] 방산진흥국 (회의자료)
- [4] 방산진흥국 (회의자료)
- [5] 방산진흥국, “주요국가 방산수출 관련 자료,” (방사청회의자료, 2007. 6. 15), p. 10.
- [6] 「서울신문」, 2007. 4. 2.
- [7] 「국방일보」, 2007. 7. 19.
- [8] 「중앙일보」, 2007. 6. 25.
- [9] 「중앙일보」, 2007. 7. 2.
- [10] 「조선일보」, 2007. 1. 18.
- [11] SIPRI Yearbook 2006,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12] 방산진흥국 회의 자료.
- [13] 방산진흥국 회의자료와 「중앙일보」, 2007. 6. 30에서 재편집.
- [14]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회의자료.
- [15] 「매일경제」, 2007. 6. 25.
- [16]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자료.
- [17] 국방부, 『방위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2005), p. 19.
- [18] SIPRI Yearbook 2006, *Arms Production*, p. 388.
- [19] SIPRI Yearbook 2006, *Military Spending and Armaments*, p. 422.
- [20] 방사청, 산업자원부 국방기술 민수이전 설명회 자료(2006).
- [21] 방산진흥국, 「방산수출 활성화 계획」, (2007), p. 4.